

전남 지자체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들쭉날쭉'

소화전 옆 적색표시 안한 지자체 수두룩 형평성 논란 민원 때문에 단속 안하고 인프라 소극적 효과 제각각

정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선거를 의식, 단속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 효과가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순천지역, 공익 신고 가장 활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모두 1만2201건의 공익 신고(8월 말 기준)가 접수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로, 안전신호와 엮을 통해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의 경우 2903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목포(2460건), 광양(1677건), 여수(1555건), 나주(570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신안의 경우 고작 3건만 접수되는 데 그쳤고 곡성(22건), 보성(25건), 함평(37건), 구례(38건), 담양(60건) 등은 신고 건수가 적었다.

◇들쭉날쭉한 인프라 구축=문제는 금지 구간을 나타내는 표시나 안내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자체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을 개정,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는 노면을 적색으로 도색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순천지역만 대상지(465곳)에 대한 적색 노면 표시를 100% 완료했을 뿐이다. 여수(92%), 나주(82%) 등도 그나마 적극적인 편이다. 목포·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 등은 대상지가 있음에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도 전남도

가 50%를 지원해주고 이씨만 고흥·보성·화순·장흥·무안 등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주·정차 위반 상황인데도 어느 지역은 신고가 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하기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주·정차 공간도 부족한 대 무조건 단속만 하느냐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적색도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자치단체에 독려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에 대한 연중 홍보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대상' 평가 전남도 대표 블로그 대상

전남도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대한민국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 대상'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 대상(소셜아이 어워드 2019)'은 인터넷 전문가 약 3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하게 운영된 SNS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공공기관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을 시상하고 올바른 SNS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했다.

전남도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7개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평균 12건의 콘텐츠를 동영상, 사진, 웹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

게 제공하며 소통을 확대해 쌍방향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대표 블로그(<https://blog.naver.com/greenjeonnam>)에서는 70명의 블로거가 자진 활동, 전남 관광지를 비롯해 특산물, 동네 소식, 창업 사례 등 구석구석을 활발하게 취재해 올리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총 400건의 블로그 콘텐츠 게시할 예정이다.

최병만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에게 고정소식을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1인 미디어 시대 등 SNS 홍보 트렌드 변화에 따라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고정 홍보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 처리

전남도의회 30일까지 임시회

전남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범위와 금액을 논의한다. 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도 진행한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으로 미래 산업을 대비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한 조례안 등 6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도정 질문은 23·24일과 26일, 3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19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전남도와 도의원, 주민정주조례 등으로 각각 상정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정됐다.

오는 27일에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용재 의장은 임시회 개최식에서 "과거 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은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지역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강조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구청장협의회 정례회 18일 광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7기 광주구청장협의회 9월 정례회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황명선 전곡시군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양파 종자 일본산 탈피 나선다

70% 수입... 자체 개발 품종 확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일본산 양파 종자를 대체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양파 가운데 70%가량이 일본 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양파 재배 면적은 8467ha로, 전국 2만1777ha의 약 39%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하지만 종자의 최대 70%가 일본산으로, 농식품수출 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 종자가 2만1917kg(826만6146달러)가 수입된 것

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본 양파 품종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품종이 국산품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농업인들의 막연한 선호의식이 한몫을 한다는 게 종묘 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도 농기원은 그동안 극조생종 품종 '파링'을 개발, 국내종묘업체(유)대농씨드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 생산력 걱정을 마친 전남10호(중만생), 전남11호(중생) 계통은 일본품종에 비해 수량은 대등하면서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은 4~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계통은 품종보호출원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묘업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준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는 "그동안의 육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품종을 개발하여 국산 자급률 100%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종자산업을 블루이코노미 비전과 연계해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파 육종·종식·판매 허브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통합의학박람회 10월 7일 장흥서 열린다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란 주제로 10월 7일 장흥에서 개막한다. 장흥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7일간 열리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보완의학을 융합한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다.

올해는 주제전시장,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대체보완의학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6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전국 대학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12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함께 다채로운 통합의학 체험장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통합의학을 새롭게 재정립

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연계·발전 방안을 모색할 학술대회를 비롯해 명의 초청 건강강좌, 스크린슈머, 신체활동 경연대회, 인체모형존, 트리아트 포토존, 약초동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감상선암 초음파, 중년여성 갱년기를 리니, 한방추나요법, 흉체 건강검진, 아로마 향기치료, 명상 심리치료, 미술·음악 테라피 등 체험 부스가 새롭게 운영된다. 통합의학박람회 영상관, 북카페, 40여 종의 약초공원, 표고버섯 울타리 등 박람회장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박람회 가족힐링이벤트 참가하세요

1000가족 선착순 모집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가족힐링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1000가족(4000명) 대상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4일간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우리가족 미니정원 만들기, 천연염색 가족티셔츠 만들기, 가족 케리커져 그리기, 치즈만들기, 온가족 천연바스용품 만들기, 단감따기 체험 등 6종이다.

참가 신청은 9월 9일부터 국제농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동안 드론 경진대회, 한평 텃밭 정원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까지 3종의 경진대회 참가 희망자도 모집 중이다. 행사 기간 중 평일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 청소년 단체를 위한 대나무 물총만들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등 약 70여종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로 4회째 국제행사로 준비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831749802

873314009

point

12 point

10 point


8 point

6 point


5 point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